

韓國 氣象資料의 分析을 통한 運氣 氣候에 關한 研究

朴燦永 · 金基都 · 朴炫局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 醫史學教室

【초록】 명대 장경악은 기상 현상에 관하여 “오운육기를 토대로 기화를 추측하면 피차의 영허에 대해 십중칠팔은 들어맞는다”고 하였는데, 이를 착안하여 논자는 『황제내경』에 기재된 기상에 관하여 운기의 기후 특징을 한반도 서울을 중심으로 실제 기상관측 자료와 비교 분석하였다. 기상청 자료를 토대로 서울의 평균 풍속·평균 기온·강수량·평균 습도를 운기 이론 가운데 대운과 비교하였다. 또한 과거 1564년에서 1863년까지 한반도의 이상 기후 발생 빈도와 운기성쇠·운기동화·운기순역과 비교하였을 때, 운기동화의 경우와 이상 기후 발생 빈도와 일치하였다. 다만 본 논문의 실제관측 자료와 통계는 한국의 서울을 중심한 분석이기에, 중국과의 어느 정도 오차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중심말말 : 오운육기, 황제내경, 십간, 십이지지, 60갑자, 기상, 기후, 대운, 사천지기, 주기, 객기, 객주가임, 운기성쇠, 운기동화, 이상기후, 울발, 승복, 기상청, 서울, 한반도

I. 序 論

五運六氣論은 日月星辰과 地球와의 運動關係에서 자연계가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해석하는 학문으로 陰陽五行과 天人相應 사상¹⁾²⁾에 이론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 『黃帝內經』에 도입된 운기론은 生理, 病理, 藥理, 治法을 강구하였고, 天體運行에 共範律을 세워 氣象의 변화와 인체의 변화에 따른 관련성을 밝혔다³⁾.

운기학에 있어 十干과 十二地支로 구성된 60

甲子是 한해의 기후와 질병의 발생을 예측하는 요소이다. 십간은 五運으로 변화하고 십이지지는 六氣로 변화하며, 五運의 太過와 不及과 六氣의 盛衰에 의해 해당 년의 기후 특징이 나타난다. 오운과 사천이 상합하여 平氣年을 형성하거나 또는 氣가 서로 同化되어 世會나 天符 또는 太乙天符와 같은 해가 되기도 한다. 운기의 태과와 불급으로 氣의 鬱積과 爆發 현상이 발생하며 이로 인하여 勝·復의 이상 기후 현상이 돌발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明代 張景岳은 기상 현상에 관하여 『類經·運氣

1) 鄭鎮濤, 『內經要覽』 廣東科技出版社, 1987, p.206
2) 張廷樞, 『中國氣象學』, 四川科學技術出版社, 1991, pp.53-54
3) 尹吉榮, 『東醫學의 方法論 研究』, 成輔社, 1983, p.280

類』에서 “오운육기를 토대로 기화를 추측하면 피차의 영허에 대해 십중칠팔은 들어맞는다”⁴⁾고 하였다.

최근 국내에서도 運氣學說에 관한 연구⁵⁾가 깊게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의 王⁶⁾, 揚⁷⁾, 王⁸⁾의 운기 이론의 연구와 이를 적용하여 중국 기상을 분석한 연구⁹⁾를 바탕으로 저자는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황제내경』의 운기이론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大運과 司天之氣, 運氣相合, 運氣同化 그리고 勝·腹에 따른 이상 기후 현상의 경우에 있어, 한국의 실제적인 기상관측 자료와 비교 분석하여 운기 기후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고대 기상학에 관한 운기론적인 측면을 한국의 기상관측 자료를 통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II. 本 論

1. 五運六氣 氣候의 特徵

1) 五運의 氣候 特徵

‘運’이란 구르고 움직인다는 뜻으로 ‘五運’은 木運·火運·土運·金運·水運의 약칭이다. 木·火·土·金·水가 땅에서는 오행이 되고, 하늘에서는 오운이 되는 것이다.

오운은 오행의 상생과 상극 이론을 천간의 음양에 배합하여 매년 기후¹⁰⁾의 정상적인 변화와 이상 기후 변화를 분석한 다음 이를 다섯 가지 종류의 기후인 風·熱·濕·燥·寒으로 표현한 것이다.

십간의 오행 배속은 ‘甲乙屬木, 丙丁屬火, 戊己屬土, 庚辛屬金, 壬癸屬水’에 해당하므로 이를 응용하여 만물의 生長化收藏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
- 4) 張景岳, 『類經·運氣類』, 『五運太過不及下應民病上應五星德化政令災變異候』, 成輔社, 1978 p.853
 “愚按, 五運之有太過不及 …… 自余有知以來, 常以五六之義, 逐氣推測, 則彼此盈虛, 十應七八 ……”
- 5) 朴炫局 외1人, 『內經의 氣象에 關한 研究』, 東西醫學, 1984(9), pp37-46
 朴炫局 외1人, 『運氣學說의 理論 및 運用에 關한 研究』, 1996, 博士學位論文, 東國大學校 大學院
 金重漢 외1人, 『王冰에 關한 研究』, 慶熙韓醫大論文集, 1981, pp172-184
 尹暢烈 외1人, 『干支와 運氣에 關한 研究』, 慶熙大學校論文集, 1987, pp277-346
 金準泰 외1人, 『尹草窓의 生涯와 草窓訣의 書誌學的 意義에 關한 小考』, 大田大學校 論文集, 1993, pp127-132
 李炯周 외3人, 『運氣論의 本質의 理解와 그 實用化에 關한 研究』, 慶熙大論文集
 鄭相信 외1人, 『素問玄機原病式中 五運主病에 關한 文獻의 研究』, 碩士學位論文, 東國大學校 大學院, 1990
 申興默 외1人, 『三陰三陽의 五行六氣 氣化生理에 關한 研究(I)』, 東國大學校 大學院
 金性銓, 『黃帝內經의 運氣二十五人 體質論에 關한 研究』, 大韓韓醫學會誌 第10卷 第2號, pp93-95
- 6) 王琦 외3人, 『運氣學說의 研究與考察』, 知識出版社, 1989
- 7) 揚力, 『中醫運氣學』,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6
- 8) 王玉川, 『運氣探秘』, 華夏出版社, 1993
- 9) 李氏聽, 『從蘭州氣象談運氣學說』, 『陝西中醫』, 1985년 5기
 劉玉芝, 『鄭州地區30年氣象學要素對運氣學說의 驗證』, 『河南中醫』, 1985년 2기
 閻樂知, 『用現代氣象學驗證五運六氣學說의 價值』, 『北京漢醫學院學報』, 1984년 5기
 趙嘉俊, 『運氣太過不及與天津氣象의 印證』, 『浙江省中醫雜誌』, 1981년 3기
 封菊秋, 『怎樣認識五運六氣』, 『遼寧中醫』, 1979년 3기
 郝少杰, 『五運六氣學說與氣候關係의 探討』 —— 附: 西安30年氣象資料分析. 『陝西中醫』, 4(5). 1. 1983
 鄭友芝, 『運氣學說與杭州氣候』, 『浙江中醫雜誌』, 1980. 5
- 10) 東亞出版社編輯部 東亞國語大辭典 東亞出版社
 기후(氣候): (명) ○<지>한 고장의 여러 해에 걸친 기상(氣象)의 평균상태. 위도의 높낮이, 해발(海拔)의 크고 작음, 그 밖에 바람, 해류, 지형 따위의 기후 인자(因子)로써 결정됨. [climate]
 ② 일년의 24절기와 72후(候)를 통틀어 일컫는 말. 기절(氣節).

또한 십간은 오운의 속성에 따라 배속할 수 있는데, '甲己化土, 乙庚化金, 丙辛化水, 丁壬化木, 戊癸化火'에 해당하므로 역시 이를 응용하여 매년의 기후 변화를 예측하거나 변화 규칙을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化'란 변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甲己化土란 갑년과 기년은 토운이 주관하며, 乙庚化金이란 을년과 경년은 금운이 주관하며, 丙辛化水란 병년과 신년은 수운이 주관하며, 丁壬化木이란 정년과 임년은 목운이 주관하며, 戊癸化火란 무년과 계년은 화운이 주관한다는 의미이다.

십간이 오운으로 변화되는 원리로는 月建法과 二十八宿에 관한 설명이 있는데, 월건법은 매년 정월 월건의 陽干을 오행 상생의 원리에 따라 운기로 적용하는 방법이다. 甲年과 己年은 甲子起月에 따르면 '甲己年甲子'가 되는데, 이는 바로 이전 해의 11월 간지가 갑자이므로, 그 해 정월은 丙寅이 되고, 이때 丙은 陽火로 化生土에 의하여 甲己는 토로 변한다는 것이다.

십간이 변화한 운을 '申運'이라 한다. 이는 天氣가 上에 있고 地氣가 下에 있으므로, 천기와 지기의 가운데 있는 운을 '중운'이라 한다. 『素問·六元正紀大論』에서는 "天氣不足, 地氣隨之, 地氣不足, 天氣隨之, 運居其中而常先也."라 하였다. 이는 천기가 하강하려면 가운데 있는 운이 먼저 하강하게 되고, 지기가 상승하려면 가운데 있는 운이 먼저 상승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중운은 각각 해당 년에 있어 한 해의 기운을 주관하므로, '大運' 또는 '歲運'이라고도 한다. 이들은 토운·금운·수운·목운·화운의 순서로 일년을 주기로 변화하므로 『素問·天元紀大論』에서는 "甲己之歲, 土運統之; 乙庚之歲, 金運統之; 丙辛之歲, 水運統之; 丁壬之歲, 木運統之; 戊癸之歲, 火運統之."한다고 하였다.

甲年의 경우는 陽土가 한 해의 운을 주관하며 己年의 경우는 陰土가 한해의 운을 주관한다. 乙年의 경우는 陰金이 한 해의 운을 주관하며 庚年의 경우는 陽金이 한 해의 운을 주관하며, 나머지의 경우는 이와 같다.

십간을 음양으로 나누어 보면 陽干은 太過에 陰干은 不及이 해당하므로, 십간이 오운으로 변

화함에 태과와 불급의 나뉘어 있다.

『素問·氣交變大論』에서는 오운의 태과와 불급에 따른 기후의 특징을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歲木太過, 風氣流行 …… 歲土不及, 風氣大行 …… 歲火太過, 火氣流行 …… 歲金不及, 火氣大行 …… 歲土太過, 濕氣流行 …… 歲水不及, 濕氣大行 …… 歲金太過, 燥氣流行 …… 歲木不及, 燥氣大行 …… 歲水太過, 寒氣流行 …… 歲火不及, 寒氣大行”이라 하였으니, 토운이 불급한 경우는 목운이 태과한 경우와 기후의 특징이 같고, 금운이 불급한 경우는 화운이 태과한 경우와 기후의 특징이 같다. 이와 같이 金不及運과 火太過運이 같고, 水不及運은 土太過運과 같고, 木不及運은 金太過運과 같고, 火太過運은 水太過運과 각각 기후의 특징이 같다. 그러므로 60갑자년 가운데 목운이 태과한 六壬年과 토운이 불급한 六己年은 風의 특성을 지닌 12년에 해당한다. 또한 화운이 태과한 六戊年과 금운이 불급한 六乙年은 火와 熱의 특성을 지닌 12년에 해당한다. 또한 토운이 태과한 六甲年과 수운이 불급한 六辛年은 濕氣의 특성을 지닌 해이며, 六庚年과 六丁年은 燥氣를 六丙年과 六癸年은 寒氣의 특성을 지닌 해이다.

2) 六氣의 氣候 特徵

六氣는 風·寒·暑·濕·燥·火의 여섯 가지 기후를 말하는데, 배열 순서에 있어 風·熱·火·濕·燥·寒라 하였으니 이는 오행의 상생 관계에 따른 배열로 『素問·六微旨大論』에는 “顯明之右, 君火之位也; 君火之右, 退行一步, 相火治之; 復行一步, 土氣治之; 復行一步, 金氣治之; 復行一步, 水氣治之; 復行一步, 木氣治之; 復行一步, 君火治之.”라 하였다.

오운과 육기의 관계에 있어 하늘에서는 無形의 六氣가 되고 땅에서는 有形의 五行이 된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어 無形의 風氣는 땅에서 有形의 木이 되어 風으로 동방에서 화생한다. 하늘에 있어 무형의 熱氣는 땅에서 유형인 火가 되어 熱은 火로 남방에서 화생한다. 하늘에 있어 무형의 濕氣는 땅에서 유형인 土가 되어 濕

은 증양에서 화생한다. 하늘에 있어 무형의 燥氣는 땅에서 유형의 金가 되어 燥는 서방에서 화생한다. 하늘에 있어 무형의 寒氣는 땅에서 유형의 水가 되어 寒은 북방에서 화생한다.

오운과 육기가 상합하여 風生木, 熱生火, 濕生土, 燥生金, 寒生水가 되어 우주 삼라만상의 끊임없는 현상을 낳게 된다.

이러한 현상의 드러남을 고인들은 三陰三陽인 '厥陰·少陰·太陰·少陽·陽明·太陽'으로 표현하였고, 이를 육기와 연관시켜 이해하였다. 따라서 삼음삼양과 육기의 관계를 '風化厥陰·熱化少陰·火化少陽·濕化太陰·燥化陽明·寒化太陽'으로 표현하였으며, 이들 간의 관계에 있어 六氣는 본이 되고 三陰三陽은 標라 하였다¹¹⁾.

이들 간의 운용은 '厥陰風木·少陰君火·太陰濕土·少陽相火·陽明燥金·太陽寒水'로 배합하여 육기를 표현하고, 십이지지와 배합하여 年·月·日·時와 오행과 방위 등을 관련하여 이상 기후 변화를 예측한다.

육기를 해석함에 있어 '主氣'와 '客氣', 그리고 이들 간에 '客主加臨'하는 상황을 살펴보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주기는 정상적인 기후 변화를 객기는 이상 기후 변화를 예측하는데 응용하고, 객주가임은 기후의 이상과 복잡한 변화를 분석함에 응용한다.

삼음삼양은 육기와 배합되어 해당 년의 기를 주관하며, 일년을 주관하는 객기는 여섯 종류로 분류되며 그 가운데 三之氣인 '司天'과 六之氣인 '在泉'이 있다.

『素問·六元正紀大論』에는 “歲半之前, 天氣主之. 歲半之後, 地氣主之”라 하였고, 『素問·至真要大論』에는 “初氣終三氣, 天氣主之 …… 四氣盡終氣, 地氣主之.”라 하여 上半年은 司天의 氣가 주관하고 下半年은 在泉의 氣가 주관함을 설명한 것이다.

'객주가임'은 매년 일정하지 않은 객기가 주기에 배속되어 상임함을 말한다.

객기는 하늘에서 움직임을 주관하고, 주기는 땅에서 고요함을 주관한다. 이들은 각기 따로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위에서 서로 대응하며 한과 열로 견제함을 『素問·五運行大論』에는 “上下相邁, 寒暑相臨”이라 설명하고 있다. 즉 '相邁'와 '相臨'으로 기후의 정상적인 변화와 이상 기후 변화를 추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기는 매년 여섯 걸음으로 나누어져서 일정하게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객기는 매년 여섯 걸음으로 나누어져서 해당 년의 지지에 따라 해마다 변하게 된다.

따라서 客氣의 六步와 主氣의 六步가 짝을 이루어 만나면 찬 기후를 따뜻하게 하거나, 혹은 따뜻한 기후를 서늘하게 만들어 기후를 해마다 다르게 변화시키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素問·天元紀大論』에서 “子午之歲, 上見少陰. 丑未之歲, 上見太陰. 寅申之歲, 上見少陽. 巳亥之歲, 上見厥陰.” …… “厥陰之上, 風氣主之. 少陰之上, 熱氣主之. 太陰之上, 濕氣主之. 少陽之上, 相火主之. 陽明之上, 燥氣主之. 太陽之上, 寒氣主之. 所謂本也. 是謂六元.”이라 하였다.

客氣의 순서는 厥陰風氣(木)→少陰熱氣(君火)→太陰濕氣(土)→少陽火氣(相火)→陽明燥氣(金)→太陽寒氣(水)의 차서로 매년 일정하게 바뀌면서 운행한다.

또한 객기는 일년 가운데서도 주기와 함께 六步로 나누어져서 순환하며 이 순환의 시작과 끝은 해당 년의 객기 사천에 의하여 결정된다.

매년 사천의 기는 일정하며 六步 가운데 三之氣에 해당하며, 재천의 기는 육보 가운데 終之氣에 해당한다. 여기에 初之氣는 재천의 左間에서 시작하고, 二之氣는 사천의 右間, 四之氣는 사천의 左間, 五之氣는 재천의 右間이 된다.

主氣의 순서는 厥陰풍기(木)→소음열기(君火)→소양화기(相火)→태음습기(土)→양명조기(金)→태양한기(水)의 순서로 매년 마다 바뀌지 않

11) 이를 『素問·天元紀大論』과 『素問·六微旨大論』에서는 “厥陰之上, 風氣主之. 少陰之上, 熱氣主之. 太陰之上, 濕氣主之. 少陽之上, 相火主之. 陽明之上, 燥氣主之. 太陽之上, 寒氣主之. 所謂本也, 是謂六元.”이라 하였으며, “……所謂本也 ……氣之標也”라 하였다.

고 항상 일정하며 정상적인 변화에 속한다.

그런데 주기에 객기가 가임함에 있어 기후가 마땅히 따뜻해야 하는데 따뜻하지 않거나, 더워야 하는데 덥지 않고, 습기가 많아야 하는데 습하지 않고, 건조해야 하는데 건조하지 않거나, 추워야 하는데 춥지 않고 따뜻한 여러 가지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일년의 기후 변화에 있어서 추위와 더위, 비와 바람, 맑음과 흐림 등의 이상 기후 기후의 이변과 이변의 정도를 예측함은 운기학에 있어 객기가 주기에 가임함과 관련이 있다. 여기서 매년 기후의 이변을 추측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객주가임의 경우에 있어 육기의 속성과 그에 따른 상호 영향을 고려해야 할뿐만 아니라, 객주가임의 ‘相得’과 ‘不相得’ 및 ‘順’과 ‘逆’을 중점적으로 살펴야 한다.

‘相得’과 ‘不相得’에 관하여 『素問·五運行大論』에는 “氣相得則和, 不相得則病”이라 하였다. ‘相得則和’는 客主加臨이 성립된 이후 객기와 주기가 相生 또는 같은 속성의 氣가 가임한 경우를 말한다. 반면에 객기와 주기가 相克의 경우가 성립되어 객기가 주기를 상극하는 경우는 ‘상득’에 속하지만, 주기가 객기를 상극하는 경우는 ‘불상득’에 해당한다. 이러한 관계를 『素問·至眞要大論』에는 “主勝逆, 客勝從”이라 하였다.

‘順’과 ‘逆’에 관하여 『素問·六微旨大論』에는 “位之易也何如? 岐伯曰: 君位臣則順, 臣位君則逆, 逆則其病近, 其害速. 順則其病遠, 其害微, 所謂二火也.”이라 하였다. 이는 객기와 주기가 상합될 때 객기가 주기를 상극하면 ‘순’이 되고, 주기가 객기를 상극하면 ‘역’이 된다.

3) 運氣學的 氣候 特性과 氣象觀測 資料와의 比較

현대 기상¹²⁾ 관측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운기학에서 중요하게 취급되는 기후의 요소는 바람, 기온, 습도, 강수량 네 가지 요소라 생각된다.

여기서 바람은 운기학에서 厥陰은 風氣의 변화를 의미하고, 少陽의 火氣와 少陰인 熱氣 그리고 太陽은 寒氣의 기온의 변화를 의미하고, 太陰은 濕氣로 강수량을 의미하며, 太陰의 濕氣와 陽明의 燥氣는 습도를 대표하는 요소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네 가지 요소의 변화를 해당년의 평균치를 조사하여 大運과 司天之氣의 속성과 우리들이 거주하고 있는 환경 속에 나타난 기후의 특징과 부합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1954년 甲午年에서 1983년 癸亥年까지¹³⁾ 서울¹⁴⁾의 평균 풍속, 평균 기온, 강수량, 평균 습도의 값은 다음과 같은 【도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도표 1】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관측된 30년 기후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평균 풍속이 가장 빨랐던 해는 丙午年(1966)으로 3.0%를 기록했다. 운기학에서 언급된 丙午年의 특성은 水運이 太過한 年에 속한다. 그런데 木運이 太過한 年나 土運이 不及한 年의 경우는 風의 속성이 강하게 작용하여야 하는데, 이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丙午年을 육기적인 해석인 少陰君火가 司天하는데, 三之氣인 君火와 風의 속성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관측된 기후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해는 乙卯年(1975)과 壬戌年(1982)으로 각각 12.5℃ 였다. 운기학에서 언급된 乙卯年의 특성은 金運不及하여 火運太過의

12) 東亞出版社編輯部 東亞國語大辭典 東亞出版社. 1985
기상(氣象) (명) <지>날씨가 덥거나 춥거나, 개거나 흐리거나 하는 모든 대기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변화의 현상. [atmospheric phenomena]

13) 평균 풍속, 평균 기온, 강수량, 평균 습도 등의 기상 자료가 함께 측후되기 시작한 것은 1954년부터이며, 1954년은 60甲子의 후반30년이 시작되는 시점이므로 이를 표준 기간으로 삼았다.

14) 서울(漢成)은 한반도의 중심지이며 동시에 수도로 기상 관측 자료도 타 지역에 비하여 비교적 풍부하게 잘 보존되어 있어 표준 지역으로 삼았다.

【도표 1】 1954년 甲午年에서 1983년 癸亥年까지 서울의 기후 도표

연도	평균풍속 (m/s)	평균기온 (℃)	강수량 (mm)	습도 (%)	최고기온 평균 (℃)	최저기온 평균 (℃)	
54	甲午	2.5	11.4	1436	72	16.6	7.1
55	乙未	2.5	11.5	1231	70	16.7	7.1
56	丙申	2.4	10.1	1701	69	15.3	5.9
57	丁酉	2.4	10.4	1220	71	15.6	6.1
58	戊申	2.2	11.6	1325	70	16.7	7.3
59	己亥	2.3	12.0	1371	70	17.0	7.9
60	庚子	2.2	12.1	1188	68	17.0	7.8
61	辛丑	2.2	12.3	1437	70	17.1	8.1
62	壬寅	2.2	11.5	986	69	16.5	7.3
63	癸卯	2.4	11.1	1627	71	16.0	7.2
64	甲辰	2.2	12.1	1794	71	19.6	8.4
65	乙巳	2.6	11.3	1216	67	16.4	7.0
66	丙午	3.0	11.6	2019	68	16.2	7.4
67	丁未	2.5	11.6	1249	69	16.5	7.7
68	戊申	2.6	11.7	1288	69	16.8	7.6
69	己酉	2.6	10.8	1737	70	15.4	7.0
70	庚戌	2.5	11.3	1708	70	16.1	7.5
71	辛亥	2.5	11.5	1360	71	16.1	7.8
72	壬子	2.6	11.9	1770	74	16.4	8.0
73	癸丑	2.6	12.0	928	72	16.8	8.2
74	甲寅	2.5	11.1	1250	70	15.9	7.2
75	乙卯	2.3	12.5	1067	67	17.4	8.6
76	丙辰	2.4	11.4	1110	66	16.7	7.2
77	丁巳	2.3	12.3	1148	68	17.3	8.0
78	戊午	2.4	12.4	1161	67	17.2	8.4
79	己未	2.5	12.4	1279	69	17.2	8.6
80	庚申	2.6	10.8	1242	67	15.7	6.8
81	辛酉	2.6	11.2	1216	68	15.8	7.2
82	壬戌	2.5	12.5	949	65	17.4	8.3
83	癸亥	2.5	12.4	1205	65	16.9	8.3

年인데 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특징과 일치하지만, 壬戌年은 木運太過의 특성을 지닌 경우로 평균 풍속이 높게 예측되어야 하지만 실제로 한 반도에 나타난 기후의 특성은 평균 기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경우였다. 육기적으로 살펴보면 乙卯年은 燥金이 司天하여 燥氣가 시행되는 기후의 변화와는 일치하지 않았고, 壬戌年 역시 太陽寒水가 司天하여 寒氣가 시행되어야 하는 경우이나 실제 관측된 기후의 변화는 평균 기온이

가장 높게 관측된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관측된 기후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해는 丙申年(1956)으로 이 해는 水運이 태과한 년의 경우로 통계와 오운적인 기후 특징이 일치하였다. 그러나 육기적으로 살펴보면 相火가 司天하여 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속성과는 상반된다.

관측된 기후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평균 습도가 가장 높은 해는 壬子年(1972)으로 그 값이

74%)이다. 오운적인 해석으로 살펴보면 이 해는 木運이 태과한 년으로 평균 습도가 가장 높다는 것과 일치하지 않고, 또한 육기적으로 살펴보아도 司天에 君火가 가임한 경우로 평균 습도가 가장 높게 관측된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

관측된 기후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평균 습도가 가장 낮아 매우 건조했던 해는 壬戌年(1982)으로 그 값이 65(%)이다. 오운적인 해석으로 살펴보면 이 해는 木運이 태과한 년으로 평균 습도가 가장 낮아야 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고, 또한 육기적으로 살펴보아도 司天에 寒水가 가임한 경우로 평균 습도가 가장 낮게 관측된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

관측된 기후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강수량이 가장 높았던 해는 丙午年(1966)으로 그 값이 2019mm이다. 오운적인 해석으로 살펴보면 이 해는 水運이 태과한 년으로 평균 강수량이 가장 높다는 것과 일치하지 않고, 또한 육기적으로 살펴보아도 司天에 君火가 가임한 경우로 평균 강수량이 가장 높게 관측된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54년에서 1983년까지 평균 풍속, 평균 기온, 강수량, 평균 습

도 가운데 그 최고 값이 大運과 司天之氣의 기후와 부합하는 해는 을묘년과 병신년 2개의 경우만 해당되었다.

다음은 歲木이 태과하여 風氣가 유행하는 三壬年의 경우와 歲土가 불급하여 風氣가 大行하는 三己年의 경우, 火氣가 유행하는 三戊年과 化氣가 대행하는 三乙年, 濕氣가 유행하는 三甲年과 濕氣가 대행하는 三辛年, 燥氣가 유행하는 三庚年과 燥氣가 대행하는 三丁年, 寒氣가 유행하는 三丙年과 寒氣가 대행하는 三癸年에 있어 각각의 육년의 평균 풍속, 평균 기온, 강수량, 평균 습도를 합산하여 그 해의 대운과 기후와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1) 五運의 氣候 特徵과 氣象觀測 資料와의 比較

【도표 2】¹⁵⁾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측된 자료에 의하면, 평균 풍속이 가장 높았던 해는 水運이 太過한 경우와 火運이 不及한 경우인 三丙年과 三癸年에 해당되었으나, 오운에 있어 風의 기후 특성이 발현되어야 하는 木運이 太過한 경우나 土運이 不及한 경우와는 부합하지 않았다. 관측된 자료에 의하면 평균 기온이 가장 높았던

【도표 2】 오운에 따른 기상 관측 자료

	평균풍속 (%)		최고기온 평균 (°C)		강수량 (mm)		습도 (%)		최저기온 평균 (°C)	
木太過	7.3	14.5	50.3	99.9	3705	8082	208	417	23.6	47.1
土不及	7.2		49.6		4377		209		23.5	
火太過	7.2	14.6	51.7	102.2	3764	7268	208	412	23.3	46.0
金不及	7.4		50.5		3504		204		22.7	
土太過	7.2	14.5	49.2	98.2	4480	8493	213	422	22.7	45.8
水不及	7.3		49.0		4013		209		23.1	
金太過	7.3	14.5	48.8	98.2	4128	7735	205	413	22.1	43.9
木不及	7.2		49.0		3607		208		29.8	
水太過	7.8	15.3	48.2	97.9	4830	8690	203	411	20.5	44.2
火不及	7.5		49.7		3860		208		23.7	

15) 김평식, 기상학 사전, 향문사, 1992, p.735

적산 수치: 평균 풍속, 평균 기온, 강수량, 평균 습도를 그 해 값 각각을 모두 더한 기상 수치이다.

해는 火運이 태과한 경우와 金運이 불급한 경우인 三戌年과 三乙年에 해당하며, 오운에 있어 火의 기후 특성이 발현되어야 하는 火運이 태과한 경우나 金運이 불급한 경우와 일치하였다.

관측된 자료에 의하면 강수량이 가장 높았던 해는 水運이 태과한 경우와 火運이 불급한 경우인 三丙年과 三癸年에 해당되었으나, 오운에 있어 濕의 기후 특성이 발현되어야 하는 土運이 태과한 경우나 水運이 불급한 경우는 약간의 유의성¹⁶⁾이 있었다.

관측된 자료에 의하면 평균 습도가 가장 높았던 해는 土運이 태과한 경우와 水運이 불급한 경우인 三甲年과 三辛年에 해당하며, 오운에 있어 濕의 기후 특성이 발현되어야 하는 土運이 태과한 경우나 水運이 불급한 경우와 일치하였다.

관측된 자료에 의하면 평균 습도가 가장 낮았던 해는 水運이 太過한 경우와 火運이 不及한 경우인 三丙年과 三癸年에 해당되었으나, 오운에 있어 燥의 기후 특성이 발현되어야 하는 金運이 太過한 경우나 木運이 不及한 경우와는 부합하지 않았다.

관측된 자료에 의하면 평균 기온이 가장 낮았던 해는 金運이 태과한 경우와 水運이 불급한 경우인 三庚年과 三辛年에 해당되었으나, 오운

에 있어 寒의 기후 특성이 발현되어야 하는 水運이 태과한 경우나 火運이 불급한 경우는 약간의 유의성¹⁷⁾이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大運의 태과 불급에 따른 실제 기후의 관계에 있어 火氣와 濕氣는 大運의 속성과 일치하였고 寒氣는 유의성이 있었다. 그러나 燥氣와 風氣는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 다음은 육기와 기후와의 관계에 있어 司天에 따른 실제 기후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2) 六氣의 氣候 特徵과 氣象觀測 資料와의 比較

【도표 3】¹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측된 자료에 의하면, 평균 풍속이 가장 높았던 해는 司天에 君火가 가임한 경우에 해당되었으나, 육기에 있어 風氣의 특성이 발현되어야 하는 司天에 風木이 가임한 경우와 실제로 부합하지 않았다.

관측된 자료에 의하면, 평균 기온이 가장 높았던 해는 司天에 濕土가 가임한 경우에 해당되었으나, 육기에 있어 火氣와 熱氣의 특성이 발현되어야 하는 司天에 君火나 相火가 가임한 경우와 실제로 부합하지 않았다.

관측된 자료에 의하면 평균 습도가 가장 높았던

【도표 3】 육기에 따른 기상 관측 자료

육기	평균풍속(mm)	평균기온(℃)	강수량(mm)	습도(%)
궐음풍목	12.2	59.5	6300	34.1
소음군화	12.7	59.4	7514	34.9
소양상화	12.3	55.2	6567	34.4
태음습토	12.3	59.8	6124	35.0
양명조금	12.3	56.0	6867	34.7
태양한수	11.9	58.9	6886	34.2

16) 위의 경우는 강수량이 다른 해보다는 월등히 많은 기상 수치인 8493(三甲年의 4480mm와 三辛年의 4013mm를 더한 값임)이 측정되어 약간의 유의성이 있다고 생각됨

17) 위의 경우는 평균 기온 값이 다른 해보다는 월등히 낮은 기상 수치인 44.2(三庚年의 20.5℃와 三辛年의 23.7℃를 더한 값임)로 약간의 유의성이 있다고 생각됨

18) 평균 풍속, 평균 기온, 강수량, 평균 습도의 값은 그 해 값을 모두 더한 값의 기상 수치이다.

해는 司天에 濕土가 가임한 경우에 해당되었으며, 육기에 있어 濕氣의 특성이 발현되어야 하는 司天에 濕土가 가임한 경우와 실제로 부합하였다.

관측된 자료에 의하면, 평균 습도가 가장 낮았던 해는 司天에 風木이 가임한 경우에 해당되었으나, 육기에 있어 燥氣의 특성이 발현되어야 하는 司天에 燥金이 가임한 경우와 실제로 부합하지 않았다.

관측된 자료에 의하면, 강수량이 높았던 해는 司天에 君火가 가임한 경우에 해당되었으나, 육기에 있어 濕氣의 특성이 발현되어야 하는 司天에 濕土가 가임한 경우와 실제로 부합하지 않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司天之氣에 의한 기후의 특징은 司天에 濕土가 가임한 경우만 일치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일치하지 않았다.

(3) 過去 180년간 서울의 降水量을 土運이 太過한 경우와 司天에 濕土가 加臨한 境遇와 比較

우리 나라의 현대 기상관측 자료는 1954년부터 시작되어 누적된 자료가 많지 않아 이를 바탕으로 통계를 조사하기가 힘든 점이 있었다.

【도표 4】 과거 서울의 1804년 甲子年부터 1983년 癸亥年까지의 강수량

花甲	1804~1863	1864~1923	1924~1983	花甲	1804~1863	1864~1923	1924~1983	평균값(mm)
갑자	1759	1600	1001	갑오	1129	.	1436	1385
을축	2333	2330	1934	을미	1745	1058	1231	1772
병인	2752	1302	1823	병신	1026	1315	1701	1653
정묘	1175	1823	1270	정유	1272	1832	1220	1432
무진	1418	2228	1054	무술	1329	1301	1325	1443
기사	1481	1143	1130	기해	3220	1097	1370	1574
경오	1965	1643	1627	경자	1336	960	1188	1403
신미	1733	1959	1388	신축	1355	685	1437	1426
임신	1604	1555	941	임인	1605	1228	986	1320
계유	1777	1801	1401	계묘	1804	1557	1626	1661
갑술	1589	2103	1247	갑진	1453	800	1794	1498
을해	1596	2308	1202	을사	1881	1512	1216	1619
병자	2324	879	1532	병오	2329	1037	2019	1687
정축	2219	2160	1063	정미	2670	862	1249	1704
무인	1757	1477	1509	무신	1896	1066	1289	1424
기묘	1692	3148	639	기유	1683	827	1737	1621
경진	1821	1483	2135	경술	1800	1021	1708	1661
신사	3186	1387	1094	신해	2226	1067	1360	1720
임오	1278	1157	1131	임자	1582	1129	1770	1341
계미	1594	1164	647	계축	1144	917	928	1066
갑신	1834	1684	1089	갑인	1875	1263	1251	1499
을유	1045	1474	1562	을묘	1754	1578	1067	1413
병술	1392	1364	1406	병진	1749	1710	1109	1455
정해	2516	818	1496	정사	2415	982	1146	1562
무자	2572	843	1481	무오	1368	1132	1161	1426
기축	1432	944	633	기미	1578	1176	1279	1174
경인	1506	1105	.	경신	1896	1668	1242	1483
신묘	1525	1654	.	신유	1282	572	1146	1316
임진	2744	1138	.	임술	1590	1553	949	1600
계사	2181	1204	1382	계해	1681	1195	1205	1769

그러나 다행히 조선시대 측우기의 발명으로 강수량에 관한 기상관측 자료는 1770년부터 비교적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왔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과거 三甲子(180년)에 해당하는 서울의 강수량을 운기학의 土運이 太過한 경우와 司天에 濕土가 가입한 경우와 비교하여 상호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과거 서울의 1804년 甲子年부터 1983년 癸亥年까지의 강수량은 다음 【도표 4】와 같다.

【도표 4】의 자료는 1770~1960까지 중앙 기상대 <강수량표> 및 조선 총독부 관측소(1917)의 자료와 1961~1983까지 중앙 기상대 <기상년보>를 근거로 삼았다. 또한 1804년부터 1863년까지와 1864년부터 1923까지 그리고 1924년부터 1983년까지 3개의 60甲子의 경우로 구성하였다¹⁹⁾.

【도표 4】에서 본 듯이 과거 180년 동안 가장 비가 많이 온 해는 辛巳年(1821)으로 강수량이 3186mm이며, 오운에 있어 水運이 불 급하여 濕氣가 大行하는 경우와 일치하였다.

또한 관측된 자료에 의하면 가장 강수량이 적었던 해는 己丑年(1949)으로 633mm에 불과하며, 육기에 있어 司天에 濕土가 가 임하여 비가 많이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도표 5】에서 大運을 기준 하여 【도표 6】에서는 司天을 기준 하여 강수량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도표 5】 大運을 기준한 강수량 평균 값

大運	목운태과 토운불급	화운태과 금운불급	토운태과 수운불급	금운태과 목운불급	수운태과 화운불급
강수량(mm)	1438	1516	1474	1541	1549

【도표 6】 司天을 기준한 강수량 평균 값

司天	궐음풍목	소음군화	소양상화	태음습토	양명조금	태양한수
강수량(mm)	1649	1448	1476	1428	1489	1531

【도표 5】를 大運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水運太過와 火運不及年에서 평균 강수량이 1549mm로 가장 많이 관측되었고, 土運太過와 水運不及한 년은 실제 관측된 평균 강수량이 1474mm로 실제적인 순차는 네 번째에 해당하여 일치하지 않았다.

【도표 6】을 司天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厥陰風木이 가입한 해는 평균 강수량이 1649mm로 가장 많이 관측되었고, 太陰濕土가 가입한 해는 1428mm로 가장 낮아 일치하지 않았다.

2. 運氣相合에 의한 氣候 特徵

運氣相合이란 運과 氣를 결합하여 기후의 정상과 비정상을 분석하는 방법을 말하며, 운기상합은 한 해, 한 달, 하루에 모두 잠재되어 있다. 運과 氣의 상호 작용은 서로 독립적이 아니고 상호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기후와 이상 기후 기후의 변화일 때 반드시 運과 氣를 함께 고려하여야만 비교적 정확한 기후 예측의 결과를 가질 수 있다.

운기상합에는 五行, 運氣와 歲支의 生克 및 相助 등의 관계에 따라 運氣盛衰와 運氣同化의 경우를 구분한다.

1) 各年の 運氣相合

(1) 運氣盛衰

운과 기는 天干과 地支로써 추산되며, 천간은

19) 6. 25 전쟁 중인 1950년부터 1952년까지 자료와 1984년 자료가 빠져 있다.

음양을 구분하여 운의 변화를 추산하고, 지지는 음양을 구별하여 기의 변화를 추산한다. 매년의 年號는 오운에 해당하는 하나의 천간과 육기에 해당하는 하나의 지지가 조합되어 구성되는데, 이들의 상호작용으로 말미암아 운기의 성쇠와 평기가 결정된다.

운기성쇠에 있어, 운기가 盛하여 유여하면 태과가 되며 운기가 衰하여 부족하면 불급이 되며, 태과도 아니고 불급도 아니면 평기가 된다.

일반적으로 陽運의 해에 있어 '氣生運'하여 돕거나, '運克氣'하여 횡역하거나, '運生氣'하여 항성하거나, '運氣同化'의 경우 등은 모두 태과에 해당한다. 陰運의 해에 있어 '氣克運'하여 억압되거나, '運克氣'와 '運生氣'하여 流散되는 경우는 모두 불급에 해당한다. 陽運의 해에 '氣克運'하여 억압되거나, 또는 陰運의 해에 '氣生運'하거나, '歲之同氣'와 '運氣同化'로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는 기운이 모두 고르게 되어 평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운기상함에 있어서는 운과 기, 음과 양, 오행과 운기의 속성, 그리고 생극 및 세지 등이 모두 서로 복합적인 영향을 미쳐서 기후적인 복잡한 변화를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기후의 정상적인 변화와 이상 기후 변화를 분석할 때는 반드시 운기성쇠와 운기동화의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테면 運이 盛하고 氣가 衰한 해에는 마땅히 運이 主가 되고 氣가 그 다음이 되며, 반대로 氣가 盛하고 運이 衰한 해에는 氣를 主로 삼고 運이 그 다음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운기상함에는 順과 逆의 구분이 있다. '氣生運'은 順化·'氣克運'은 天刑의 경우로 이들은 모두 順의 경우에 속하며, 반대로 '運生氣'는 小逆·'運克氣'는 不和로 이들은 모두 逆의 경우에 속한다. 순화에 해당하는 해는 기후 변화가 평화롭고, 천형에 해당하는 해는 기후 변화가 격렬하며, 소역과 불화에 해당하는 해는 기후 변화가 비교적 심한 편이다.

이를테면 丙寅年의 丙은 陽水의 운이고 寅은 火氣로 陽에 속하는데, 水가 火를 극할 수 있으므로 '運克氣'가 되어 불화가 되고, 壬申年의 壬

은 陽木의 운이고 辛은 火氣로 陽에 속하는데, 木은 火를 생하므로 '運生氣'가 되어 소역이 된다. 이 두 해는 모두 運盛氣衰하므로 平年値에 비하여 기후 변화가 비교적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戊辰年의 戊는 陽火의 운이고 辰은 寒水의 기로 陽에 속하는데, 水는 火를 극할 수 있으므로 '氣克運'이 되어 천형이 되고, 甲申年의 甲은 陽土의 운이고 申은 火氣로 陽에 속하는데, 火는 土를 생할 수 있으므로, '氣生運'이 되어 순화가 된다. 이 두 해는 모두 氣盛運衰하며 이 가운데서도 戊辰年은 천형에 속하므로 기후 변화가 격렬하고, 甲申年은 순화에 속하므로 기후 변화가 비교적 작다.

(2) 運氣同化

60甲子の 運氣生克 및 消長變化는 위에서 열거하였는데, 그 가운데는 26년의 同化관계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運氣同化란 운과 기가 동일하게 변하여 합쳐지는 것이니, 예를 들면 木이 風으로 동화되고, 火가 暑熱로 동화되며, 土가 濕으로 동화되고, 金이 燥로 동화되며, 水가 寒으로 동화되는 것이다.

한편 同化에도 운의 태과와 불급이 있고, 또한 氣의 司天과 在泉에 따른 구분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인을 고려하면 天符·世會·同天符·同世會·太乙天符 등의 관계로 해석한다.

㉑ 天符

大運(中運)之氣와 司天之氣의 오행 속성에서 서로 부합하는 경우를 天符라 한다. 『素問·六微旨大論』에서 “土運之歲, 上見太陰. 火運之歲, 上見少陽少陰. 金運之歲, 上見陽明. 木運之歲, 上見厥陰. 水運之歲, 上見太陽奈何? 岐伯曰 天興地會也. 故天元玉冊曰天符.”라 하였다. 여기서 '上見'이란 司天之氣를 의미하는데, 司天之氣와 中運이 서로 부합되므로 이를 “天符”라 한다.

예를 들면 土運之歲의 경우 '上見太陰'이란 己丑·己未年의 氣가 中運이 土運이 되며, 司天之氣인 丑未는 太陰濕土이니 이들간의 오행 속성이 土로 서로 같아 土가 濕으로 同化되는 것이다.

이처럼 60年 甲子 가운데 己丑·己未·戊寅·

戊申·戊子·戊午·乙卯·乙酉·丁巳·丁亥·丙辰·丙戌년의 12년이 天符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에는 모두 司天之氣와 한 해를 주관하는 中運의 氣가 오행 속성에서 동일하여 천부가 된다.

㉞ 歲會

中運과 歲支의 氣가 오행 속성에서 서로 부합되는 경우를 世會라 한다. 『素問·六微旨大論』에서 “木運臨卯, 火運臨午, 土運臨四季, 金運臨酉, 水運臨子, 所謂世會.”라 하였다. 예를 들면 ‘木運壬卯’의 경우는 丁卯년의 中運은 木運이 되며, 동시에 歲支인 卯는 동쪽 木의 위치에 해당되어 이들 간의 오행 속성이 서로 부합하게 된다.

이처럼 60年 甲子 가운데 丁卯·戊午·甲辰·甲戌·己丑·己未·乙酉·丙子년의 8년이 歲會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모두 중운과 세지의 방위적인 오행 속성이 동일하여 세회가 된다.

㉟ 同天符

陽年으로 태과한 中運과 在泉의 客氣가 오행의 속성에서 서로 부합되는 경우를 同天符라 한다. 『素問·六元正紀大論』에는 “太過而同地化者三. …… 甲辰甲戌太宮, 下加太陰. 壬寅壬申太角, 下加厥陰. 庚子庚午太商, 下加陽明, 如是者三.”이라 하였다.

예를 들면 ‘甲辰·甲戌太宮 下加太陰’에 있어 甲은 陽土이므로 太宮이 되고 辰과 戌은 太陽寒水가 司天에 가임하므로 在泉에는 太陰濕土가 가임한다. 中運인 陽運의 土가 在泉인 太陰濕氣와 서로 부합되어 속성에서 동일하므로, 이를 土가 濕으로 同化되었음을 의미한다.

司天은 上에, 中運은 中에, 在泉은 下의 위치에 居한다. 이를테면 辰戌의 氣는 太陽이 上에, 太陰이 下에 해당되므로 ‘下加太陰’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60年 甲子 가운데 6年 즉, 甲辰·甲戌·壬寅·壬申·庚子·庚午年은 모두 中運인 陽運의 氣와 아래에 더하여지는 在泉의 客氣가 오행 속성에서 서로 동일하다.

따라서 天符의 경우는 中運의 氣와 司天의 氣가 상합한 경우이며, 六氣 六步 가운데 司天之

氣의 오행 속성이 중운과 동일한 경우에 속한다. 다만 同天符의 경우에 있어서는 在泉之氣의 오행 속성이 중운과 동일한 경우에 속한다. 때문에 上下之氣(사천·재천)의 구분만이 있어 중운의 기와 재천의 기가 서로 부합되므로 천부와 비슷한 경우에 속하지만 완전하게는 일치하지 않기에 ‘同天符’라고 한다.

㊱ 同世會

陰年으로 불급한 中運의 氣와 在泉의 客氣가 오행의 속성에서 서로 부합하는 경우를 同世會라 한다. 『素問·六元正紀大論』에서 “不及而同地化者亦三. …… 癸巳癸亥少徵, 下加少陽. 辛丑辛未少羽, 下加太陽. 癸卯癸酉少徵, 下加少陰, 如是者三.”라 하였다.

예를 들면 ‘癸巳·癸亥少徵. 癸卯·癸酉少徵. 下加少陽·少陰’의 경우에 있어서, 癸가 陰火이므로 少徵이고, 巳亥의 司天은 厥陰風木이며 在泉은 少陽相火가 가임한다. 卯酉의 사천은 陽明燥金이며 재천은 少陰君火가 가임한다. 中運은 陰運의 火運이 사령하고 在泉인 少陽相火가 가임하거나 또는 少陰君火가 가임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들 간의 오행 속성이 동일하여 火와 化熱이 同化하게 된다.

또 다른 예를 살펴보면 ‘辛丑·辛未少羽. 下加太陽’의 경우에 있어서, 辛은 陰水이므로 少羽이고, 丑未의 사천은 太陰濕土이며 재천은 太陽寒水가 가임한다. 中運은 陰運의 水가 사령하고 在泉인 太陽寒水가 가임하여 이들 간의 오행 속성이 동일하여 水가 寒으로 同化하게 된다.

이와 같이 60年 甲子 가운데 6年 癸巳·癸亥·癸卯·癸酉·辛丑·辛未年은 모두 中運인 陰運이 아래에 가임하는 在泉의 客氣와 오행 속성에서 서로 동일하다.

世會의 경우는 中運과 歲支의 방위 오행 속성이 상합한 경우이지만, 同歲會는 中運과 在泉의 客氣가 상합한 경우이다. 해당 년의 歲支의 방위와 在泉의 客氣에 따라 구분되므로 世會와 비슷한 점이 있으면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同世會’라 한다.

㉔ 太乙天符

天符이면서 동시에 世會인 경우를 太乙天符라 한다. 『素問·六微旨大論』에는 “天符歲會何如? 岐伯曰: 太乙天符之會.”라 하였다. 60年 甲子가운데 戊午·乙酉·己丑·己未의 4年은 天符에 해당되며 동시에 世會에도 해당되는데, 이들의 해는 모두 해당 年의 客氣와 中運이 歲支의 五行 속성과 부합되는 경우를 ‘太乙天符’라 한다.

운기동화를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中運과 司天之氣의 五行 속성이 상합하

는 天符 12年의 경우가 있다.

둘째, 中運과 歲支方位의 五行 속성이 상합하는 世會 8年의 경우가 있다.

셋째, 太過한 中運과 在泉之氣의 五行 속성이 상합하는 同天符 6年의 경우가 있다.

넷째, 不及한 中運과 在泉之氣가 五行 속성이 상합하는 同世會 6年의 경우가 있다.

다섯째, 運과 氣, 그리고 歲支의 五行 속성이 모두 상합하는 太乙天符 4年의 경우가 있다.

이러한 운기동화의 해를 모두 합하면 36年이 되

【도표 7】 운기상합 도표

花甲	順·逆	同化	盛·衰	花甲	順·逆	同化	盛·衰
갑자	순화		태과	갑오	순화		태과
을축	순화		평기	을미	순화		평기
병인	불화		태과	병신	불화		태과
정묘	천형	세회	평기	정유	천형		불급
무진	천형		평기	무술	천형		평기
기사	천형		불급	기해	천형		불급
경오	천형	동천부	평기	경자	천형	동천부	평기
신미	천형	동세회	불급	신축	천형	동세회	불급
임신	소역	동천부	태과	임인	소역	동천부	태과
계유	불화	동세회	불급	계묘	불화	동세회	불급
갑술	불화	세회·동천부	태과	갑진	불화	세회·동천부	태과
을해	불화		불급	을사	불화		불급
병자	불화	세회	태과	병오	불화		태과
정축	불화		불급	정미	불화		불급
무인		천부	태과	무신		천부	태과
기묘	소역		불급	기유	소역		불급
경진	소역		태과	경술	소역		태과
신사	소역		불급	신해	소역		평기
임오	소역		태과	임자	소역		태과
계미	소역		불급	계축	소역		불급
갑신	순화		태과	갑인	순화		태과
을유		태을천부	평기	을묘		천부	평기
병술		천부	태과	병진		천부	태과
정해		천부	평기	정사		천부	평기
무자		천부	태과	무오		태을천부	태과
기축		태을천부	평기	기미		태을천부	평기
경인	천형		평기	경신	천형		평기
신묘	순화		평기	신유	순화		평기
임진	순화		태과	임술	순화		태과
계사	순화	동세회	평기	계해	순화	동세회	평기

며, 이 가운데서 太乙天符 4년의 경우 즉 戊午·乙酉·己丑·己未年은 각각 天符에도 해당되고 歲會에도 해당되므로 8년을 제외하고, 同天符 2년의 경우 즉 甲辰·甲戌年 역시 世會에 해당하므로 2년을 제외하면 실제 운기동화의 해는 26년이 된다.

『素問·六元正紀大論』에는 “所謂世會, 氣之平也.”이라 하였는데, 이를 근거하여 현재 학자들은 26년의 운기동화에 있어서 상극하거나 억제함으로써 평기가 형성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²⁰⁾. 하지만 26년이 모두 반드시 평기의 해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 가운데에 있어서 태과한 해도 있다.

이를테면 戊午年의 경우는 天符이면서 世會인 太乙天符의 해에 해당되는데, 비록 運과 氣가 同化에 속하지만 모두 陽火로 太過하므로 亢害의 災害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素問· 육미지대론』에서 “太乙天符爲貴人. …… 中貴人者, 其病暴而死.”라 하여 太乙天符의 해에는 기후의 변화와 질병의 발생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년의 운기상함에 있어 運과 氣의 順逆, 同化, 盛衰 관계를 요약하면 다음 【도표 7】과 같다.

2) 異常 氣候의 特徵과 勝復·鬱發

『六微旨大論』에는 “氣有勝復, 勝復之作有德有化, 有用有變, 變則邪氣居之.”라 하여 氣의 ‘勝·復’關係를 언급하였다. 여기에서 勝·復 현상은 오행의 작용에 의하여 만물은 여러 가지 형태로 영향을 받아 德·化·用·變이 생기게 되며 이 가운데 災變은 기상 이변을 나타낸다.

變이란 勝·復 관계의 결과로 나타나는 기상 이변을 의미한다. 變은 『六元正紀大論』의 ‘鬱·發’의 개념과 유사한 형태로 모든 鬱積이 暴發한 뒤에는 보복이 시행되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연계는 균형을 유지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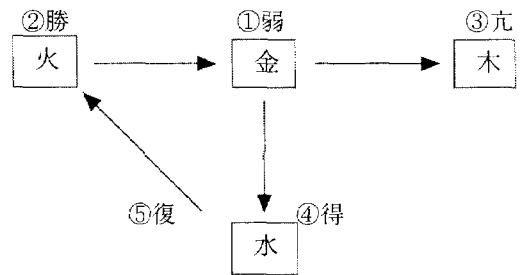
이에 관하여 『六元正紀大論』에는 “帝曰, 善. 五運之氣, 亦復歲乎? 岐伯曰, 鬱極乃發, 待時而作也. 帝曰, 請聞其所謂也. 岐伯曰, 五常之氣, 太過不及, 其發異也. 帝曰, 願卒聞之. 岐伯曰, 太過

者暴, 不及者徐, 暴者爲病甚, 徐者爲病持. 帝曰, 太過不及, 其數何如? 岐伯曰, 太過者其數成, 不及者其數生, 土常以生也.”라 하여 五鬱五發의 기후 변화와 인체 발병의 관계를 논술하고 있다.

다음은 한해에 있어서 運氣의 勝復과 鬱發의 관계를 金運이 不及年을 예를 들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54년부터 1983년까지 금운이 불급한 경우는 乙未年·乙卯年·乙巳年이 해당된다. 그러나 을미년과 을묘년은 平氣年으로 승복과 울발의 이상 기후의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1965년인 乙巳年의 먼저 勝復에 따른 五運의 生克은 【도표 8】와 같다.

【도표 8】 乙巳年의 勝復에 따른 五運의 生克 도표



【도표 8】에 따른 1965년인 乙巳年의 勝復에 따른 五運의 生克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① 金弱 : 금운 불급년이므로 金運이 약하다. 금운은 가을의 肅殺之氣의 특징을 잘 나타내며 숙살지기는 서리의 자연현상과 일치한다. 따라서 금운이 약하므로 첫서리가 상당히 늦을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실제 1965년 서울의 첫서리 날짜는 11월 14일로 평균 첫서리 일인 10월 20일 보다 상당히 늦음을 알 수 있다
- ② 火勝 : 금운이 약하므로 이를 억압하는 화운이 편승하게 된다. 따라서 火運의 炎暑가 편승하여 전체적으로 더운 날씨를 나타내게 되는데, 1965년 서울의 평균 기온은

11.3℃로 평균 기온보다 0.2℃높았다.

- ③ 木亢 : 금운의 彼克을 받는 木運의 기운이 오히려 相侮하여 過亢하게 된다.
- ④ 水得 : 미약한 금운은 水運을 相生한다.
- ⑤ 水復 : 금운으로 부터 相生을 받은 水運은 火運을 報復하게 된다.

水運의 보복현상은 한파의 기상 이변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실제로 1965년 기상재해를 살펴보면 1월에 한파와 폭풍으로 인하여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상과 같이 오운의 태과 불급의 성쇠 즉 五行의 生克作用에 따라서 안정된 상태로 가고자 하는 과정 속에서 운기의 급격한 변화가 돌출하

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자연계에서는 이상 기후의 형태로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승복 관계에 의하여 발생한 이상 기후 현상은 일정한 규율이 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현대 기상학에서도 일 년 가운데 어느 시기에 나타날지는 대단히 추측하기 어렵다.

또한 이상 기후의 특징을 【도표 9】에서 태과·불급·평기년과 운기상함에 의한 순·역 그리고, 운기동화의 해와 과거 1564~1863년까지의 이상 기후를 비교해 봄으로써 실제 기후의 특색과 60甲子의 기후 특색이 서로 연관성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도표 9】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60년 갑자가운데 순수한 태과년은 24개년이고, 불급년은 16개년 그리고 평기년은 20년에 해당한다. 또한

【도표 9】 한반도에 있어 1564~1863년까지의 이상 기후

(a: 건조, h: 습윤, c: 한랭, w: 온난)

화갑	1564 ~1623	1624 ~1683	1684 ~1743	1744 ~1803	1804 ~1863	화갑	1564 ~1623	1624 ~1683	1684 ~1743	1744 ~1803	1804 ~1863
갑자		h	ah		h	갑오		h	a	h	h
을축		h	ah	cc		을미		a	h		h
병인	w	h	h	h		병신	h		h		
정묘		h	h			정유		ah	h		
무진		ah	h			무술		h	h	h	
기사	c	ah	h			기해	h		h		h
경오	a	h	ah	h	h	경자		ac			
신미		c	h			신축			h	h	
임신			h	hh		임인					
계유	h	chh	h	c		계묘					
갑술				c		갑진		h			
을해	w	h	h		h	을사	h		a		h
병자	h	hh	h		h	병오		h			h
정축	h	hc	h		hh	정미	c		a	h	
무인	h	h	h	h		무신	ha	h			
기묘		a	h		h	기유			h	h	
경진	wha		h	h		경술		ah			h
신사	h	ah	ch		h	신해		h	ha		h
임오		h	h	ch	h	임자			a		h
계미		h	h	hh	h	계축					
갑신			ah	ah	h	갑인					h
을유			h	h		을묘	a	c			
병술		h				병진		c		h	h
정해		ha	h	h		정사		ac		h	h
무자				h		무오					
기축	h		h	h	h	기미	a	h	h		h
경인	h	h	h	h		경신		c	a		h
신묘	c		h			신유	h	h	hc		
임진				h	h	임술		h	h		h
계사			h	h		계해	h	h			h

순화에 해당하는 해는 12개년이고, 소역과 불화에 해당하는 해는 24개년이며, 천형에 해당하는 해는 12개년이다. 천부·동천부에 해당하는 해는 14개년이며, 세희·동세희에 해당하는 해는 9개년이며, 태을천부에 해당하는 해는 4개년이다. 이를 분석하면 【도표 10】와 같다.

【도표 10】 운기격국에 따른 이상 기후 발생 도표

格局	해당 년수	이상 기후 발생 년수	발생 빈도(%)
태과	120	54	45.0
불급	80	43	53.8
평기	100	57	57.0
천부·동천부	70	27	38.6
세희·동세희	45	17	37.8
태을천부	20	10	50.0
순화	60	30	50.0
소역·불화	120	61	50.8
천형	60	32	53.3

【도표 1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운기의 태과·불급·평기년의 이상기후 발생 빈도를 살펴보면, 태과년(45%)과 불급년(53.8%)보다 오히려 평기년(57%)이 이상 기후 발생 빈도가 높아 運氣盛衰에 의한 기후의 특징과 이상 기후 발생 빈도의 관계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았다.

運氣同化에 의한 천부·세희 및 태을천부년의 이상 기후 발생 빈도를 살펴보면, 비교적 기후 변화가 완만한 세희·동세희인 년(37%)이 가장 낮았고, 비교적 기후 변화가 심한 천부·동천부

인 년(38.6%)이 그 다음으로 높았고, 기후 변화가 아주 심한 태을천부인 년(50%)은 이상 기후 발생 빈도가 아주 높았다. 그러므로 運氣同化에 의한 기후의 특징과 이상 기후 발생 빈도의 관계는 일치하였다.

運氣順逆에 의한 순화·소역·불화 및 천형의 이상 기후 발생 빈도를 살펴보면, 비교적 기후가 온화한 순화 해(50%)이며, 비교적 기후 변화가 심한 소역과 불화의 해(50.8%)는 순화의 경우와 비슷하였고, 기후 변화가 극심한 해인 천형의 해(53.3%)도 순화·소역 및 불화의 해보다는 약간 높았지만 큰 차이는 없었다.

3) 한 해에 있어 運氣相合

각 해마다 運氣相合이 있듯이 한 해의 각각의 運과 氣에도 운기상합이 있다. 따라서 1년 가운데는 五運·五步와 六氣·六步에 따른 운기상합이 있고, 각각의 상황에는 모두 主運과 客運, 그리고 主氣와 客氣의 상황을 태과 불급과 그들간의 성질과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계를 통하여 매년 각 단계의 기후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후를 분석할 때에는 반드시 운과 기, 주와 객의 네 가지 조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아래 【도표 11】은 甲子年(1984년)의 경우에 있어 五運·五步에 따른 기간별 예상기후는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한해의 각 운별 기후특징을 살펴보면 주운과 객운의 順逆, 生克, 同氣 등의 관계에 의해 결

【도표 11】 甲子年(1984년)의 경우에 있어 五運·五步에 따른 이상기후 발생도표

五步	기 간	주운	객운	예 상 기 후
1운	1.21 ~ 4.03	太角	太宮	主勝客이기에 逆이 되어 客의 濕氣는 主의 風木이 勝하여 風木이 流行함
2운	4.04 ~ 6.16	少徵	少商	主勝客이기에 逆이 되어 熱氣가 나타나고 客運은 少商으로 金運不及이므로 火의 克을 받아 金이 또 다시 不及하여 火氣가 성행함
3운	6.17 ~ 8.30	太宮	太羽	主勝客이기에 逆이 되어 水濕이 서로 도와 濕氣가 유행함
4운	8.31 ~ 11.11	少商	太角	主勝客이기에 逆이 되어 清涼한 기운이 나타남
5운	11.12 ~ 1.20	太羽	少徵	主勝客이기에 逆이 되어 水氣가 비교적 성행함

【도표 12】 甲子年(1984년)의 경우에 있어 六氣·六步에 따른 이상기후 발생도표

六步	기 간	주기	객기	예 상 기 후
1기	1.21- 3.21	풍목	한수	地氣遷, 燥將去, 寒乃始, 蟄復藏 水乃冰, 霜復降, 風乃至, 陽氣鬱.
2기	3.22- 5.22	군화	풍목	陽氣布, 風乃行, 春氣以正, 萬物應榮, 寒氣時至, 民乃和.
3기	5.23- 7.24	상화	군화	天政布 大火行, 庶類蕃鮮, 寒氣時至.
4기	7.25- 9.24	습토	습토	溽暑至, 大雨時行, 寒熱互至.
5기	9.25-11.23	조금	상화	畏火臨, 暑反至, 陽乃化, 萬物乃生, 乃長榮.
6기	11.24- 1.20	한수	조금	燥令行, 餘火內格, 寒氣數舉.

정되어 있는데 1984년 甲子年은 主運이 모두 客運을 勝하는 관계가 되어 비교적 主運의 특징에 따라 기후변화가 진행된다.

다음 【도표 12】는 「六元正紀大論」에 근거하여 甲子年(1984년)의 경우에 있어 六氣·六步에 따른 기간별 예상기후는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도표 13】 甲子年(1984년)의 경우에 있어 五運·五步와 六氣·六步에 따른 예상 기후 도표

운기	기간	일수	주운 객운	주기 객기	예 상 기 후
1운 1기	1.21 ~ 3.21	60	태각 태궁	풍목 한수	주운은 태각, 객운은 태궁이 되고, 초기의 주기는 쥬음, 객기는 태양이므로, 이 네 가지를 종합해 보면 운과 기가 모두 주승객(목극토)이 되는데, "주승객위역"이므로 객의 습기는 주의 풍목이 승하여 풍기가 유행하게 된다.
1운 2기	3.22 ~ 4.03	13	태각 태궁	군화 풍목	주운과 객기는 풍목으로 서로 동기가 되고 객운과 객기의 관계는 기극운으로 천형이 된다.
2운 2기	4.04 ~ 5.22	49	소치 소상	군화 풍목	주운, 주기, 객기가 모두 동기(소음, 소치가 모두 화열의 기이고, 쥬음은 목으로, 목생화)가 되므로 풍열의 기가 나타난다.
2운 3기	5.23 ~ 6.16	25	소치 소상	상화 군화	기극운으로 천형이 되며 주운, 주기, 객기가 火로 동기로서 火熱의 기가 왕성하다.
3운 3기	6.17 ~ 7.24	38	태궁 태우	상화 군화	주운과 기를 상합하면 기생운(화생토)이므로 순이 되고, 객운과 기를 상합하면 운극기(수극화)이므로 역이 된다.
3운 4기	7.25 ~ 8.30	37	태궁 태우	습토 습토	주운과 주기, 객기에서는 기극운(토극수)로 천형이 된다. 객운과 주기, 객기에서는 기운극(토극수)로 천형이 된다.
4운 4기	8.31 ~ 9.24	25	소상 태각	습토 습토	주운과 주기, 객기의 상합에서는 기운생(토생금)에 속하여 순이 되므로 비와 습기가 유행하게 된다(토생금, 금생수) 객운과 기 상합에서는 운극기(목극토)에 속하여 역이 된다. 객운은 소각이므로 목불금이 되고, 객기와 주기는 태음으로 습토가 성하게 되는데, 습토의 기가 지나치게 성하여 이기지 못하는 풍목을 반모하여 기후는 습기가 유행하게 된다.
4운 5기	9.25 ~ 11.11	48	소상 태각	조금 상화	주운과 주기, 객기의 상합에서는 주운과 주기의 상합은 모두 금인 동기가 되고, 주운과 객기의 상합은 기극운(화극금)이 된다. 객운과 주기, 객기의 상합에서는 객운과 주기의 상합은 기극운(금극목)으로 천형이 되고, 객운과 객기의 상합은 운생기로 역이 된다.
5운 5기	11.12 ~ 11.23	12	태우 소치	조금 상화	주운과 객기를 상합하면 기극운으로 천형이 되고 객운과 객기를 상합하면 동기로 화열이 성한다.
5운 6기	11.24 ~ 1.20	58	태우 소치	한수 조금	운기상합에서는 주운과 주기가 모두 수가 되고, 객운과 객기의 상합은 운극기(화극금)으로 역이되어, 기후는 비교적 열기가 성행하여 객기의 금이 객운의 화로부터 역제를 받고, 주운과 주기의 수 또한 객운의 화로부터 역제를 받는다.

1984년인 甲子年은 六氣 六步에 따른 기후 특징을 살펴보면 初之氣는 寒氣, 二之氣는 風氣, 三之氣는 火氣, 四之氣는 濕氣 等 주로 객기의 기후 특징이 많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도표 13】은 1984년인 甲子年의 운기상합에 의한 기후특징을 예상하여 보면, 五運의 一步는 약 73日을 주관하며 六氣의 一步는 약 60日을 주

관하므로 한 해의 운기상합에 의한 기간별 구분은 다음과 같이 10단계로 구분되어 진다. 각 기간별 운기상합에 의한 예상기후는 다음과 같다.

다음 【도표 14】은 1984년 甲子年의 기상청에 관측된 실제 기후를 중심으로 운기 이론을 통한 예상기후와 연관성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갑자년인 1984년의 예상 기후 도표인 【도표 13】과

【도표 14】 甲子年(1984년)의 경우에 있어 五運 五步와 六氣 六步에 따른 실제 기후 도표

운기	기간	일수	주운 객운	주기 객기	실 제 기 후
1운 1기	1.21 ~ 3.21	60	태각 태궁	풍목 한수	만주지방과 소련의 알단고원 상공에 한기핵을 동반한 저기압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여, 이에 따라 강추위는 2월 중순까지 지속되었다. 특히 2월 6일은 강풍을 동반한 한파로 전국의 국민학교가 개학을 연기하였다. 3월 에도 한기의 남하가 빈번하여 예년보다 낮은 기온을 나타낸 날이 많았다.
1운 2기	3.22 ~4.3	13	태각 태궁	군화 풍목	3월 25~26일은 남부 일부지방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예년보다 3~12℃가량이 낮은 영하의 기온을 보였다. 서울, 인천, 추풍령의 경우는 1959년 이래로 가장 낮은 기온이었다.
2운 2기	4.04 ~5.22	49	소치 소상	군화 풍목	4월 평균 기온은 6~14℃의 분포로 동해안지방과 남해안의 일부지방을 제외한 전국은 예년보다 높은 기온이었다. 고압대가 우리 나라 남쪽해상에 위치하여 남부지방에 고온을 나타내었고, 울산지방의 경우는 5월 8일 31.8℃의 최고기온을 보여 5월 상순의 기온으로서서는 창설(1931년)이래 가장 높은 기록 값을 보였다.
2운 3기	5.23 ~6.16	25	소치 소상	상화 군화	5월 23일 부산, 거제 등의 영남해안 일부지역은 13일 100mm이상의 호우가 있었으며, 월말경인 28~30일은 대기의 불안정으로 전국의 내륙, 산간지방 곳곳에 뇌전을 동반한 소나기와 우박이 내려 피해가 컸다. 6월 상순전반과 중순전반 30~36℃의 최고기온을 지역적으로 나타낸 가운데 춘천, 서산, 군산, 홍천, 이천지방은 관측이래 6월의 고극기온으로서 기록값을 보였다.
3운 3기	6.17 ~7.24	38	태궁 태우	상화 군화	7월 중순중반까지는 중부지방과 제주도 남쪽해상을 남북으로 오르내린 장마전선을 따라 저기압이 통과함으로써 연일강수가 계속되었고, 지역에 따라서는 뇌전을 동반한 집중호우를 보여 많은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입혔다. 그리고 중순중반이후 중순말까지는 장마전선이 제주 남쪽해상이나 일본열도부근에서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최고기온이 30~37℃에 이르는 무더운 날씨를 보였으며, 하순전반은 우리나라남부지방으로 동진한 저기압과 서해해상으로 북상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영남남부내륙 및 남해안의 일부지방은 호우가 있었다. 평균기온은 예년보다 높았다.
3운 4기	7.25 ~8.30	37	태궁 태우	습토 습토	대체로 맑은 날씨에 최고기온이 30~39℃, 일평균기온이 30℃내외에 달하는 무더위가 계속되었고, 청주, 대전, 군산, 제천, 임실, 정읍, 영덕, 의성, 서산, 영진, 홍천 등지에서는 관측개시이래 기록적인 고극기온을 보였다. 2일, 14~15일, 20~21일, 24일, 26일 28~29일, 31일은 전국 곳곳에 집중호우가있어 인명 및 재산의 피해가 상당하였다.
4운 4기	8.31 ~9.24	25	소상 태각	습토 습토	전국에 걸쳐 근년에 보기 드문 집중호우가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계속됨에 따라 수재로 인한피해가 컸다. 중순말에는 우리나라북쪽에 있는 고기압이 동, 서로 분할되면서 약한 기압골이 서해안에 형성, 대기가 매우 불안정한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는 강한 뇌전을 동반한 강수로 피해가 컸다.

4운 5기	9.25 ~11.11	48	소상 태각	조금 상화	10월 이기간에는 주로 대륙성 고기압으로부터 분리된 이동성 고기압이 우리나라 부근에서 동서고압대를 형성할 때가 많아 맑은날이 많았으며, 영호남의 내륙산간지방에서는 안개현상이 자주 발생하였다. 특히 10월 상순초, 중반과 하순초 및 하순말경에는 서고동저의 기압배치를 이루면서 기온이 하강되었고, 10월 5일은 중부내륙 일부 및 강원산간지방에 예년보다 이른 첫서리와 첫얼음 현상을 보였다. 10월 30~31일은 서울을 비롯하여 각 해안지방 및 도서지방만이 영상이었을뿐 그밖의 전국은 영하의 최저기온을 보였으며, 특히 전남의 승주, 장흥, 경남의 거창, 함천, 밀양, 함양, 거제지방의 경우는 1971년이후 10월의 최저기온으로서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 한편 강수량은 호남내륙 일부지방을 제외한 전국이 예년보다 10~100mm 가량이 부족된 양이었다. 11월 상순은 이동성 고기압이 동서고압대를 이루었다.
5운 5기	11.12 ~11.23	12	태우 소치	조금 상화	대체로 이기간은 맑고 온화한 날씨가 많았고, 평균 기온은 예년보다 높았다.
5운 6기	11.24 ~1.20	58	태우 소치	한수 조금	12월 중순중반까지는 포근한 날씨를 보였으나 중순후반에 들면서 북서계절풍이 강하게 불고, 기온은 급하강하여 예년보다 낮은 영하의 기온을 보이는 등, 전형적인 겨울 날씨가 월말까지 계속되었다. 월 강수량은 2~40mm정도의 분포를 나타냈으며, 특히 영남의 일부내륙, 해안, 도서지방은 이달에도 가뭄현상이 계속되어 극심한 식수난을 겪었다.

【도표 15】 甲子年(1984년)의 경우에 있어 관측된 실제 기후와 예상 기후의 비교 분석도

운기	기간	일수	관측된 실제 기후와 예상 기후의 비교 분석
1운1기	1.21 ~3.21	60	관측된 기후 특징은 강추위였으며 이는 객기의 태양한수와 부합한다
1운2기	3.22 ~4.03	13	관측된 기후 특징도 초봄까지 이어진 꽃샘 추위였지만 주운·주기, 객운·객기, 어느 것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2운2기	4.04 ~5.22	49	관측된 기후 특징은 예년보다 높은 기온이었고 이는 주운, 주기와 부합하는 기후이며 객운, 객기와 부합하지 않았다.
2운3기	5.23 ~6.16	25	관측된 기후 특징은 호우와 이상 고온으로서 주운, 주기, 객기의 火熱과 부합하였으나 호우는 부합하지 않았다.
3운3기	6.17 ~7.24	38	관측된 기후 특징은 예년보다 높은 무더위와 많은 강수량이었으며 더위는 주기·객기와 부합하였고 호우는 주운과 부합하였다.
3운4기	7.25 ~8.30	37	관측된 기후 특징은 기록적인 고고기온과 전국적인 집중호우였으며 집중호우는 주기·객기와 부합하였고 무더위는 부합하지 않았다.
4운4기	8.31~ 9.24	25	관측된 기후 특징은 많은 강수량과 집중호우이었으며 이는 주기·객기와 부합하는 기후였다.
4운5기	9.25 ~11.11	48	관측된 기후 특징은 예년 보다 기온이 낮았고 적은 강수량였으며 주기인 조금과 객기인 상화와 부합하는 기후였다.
5운5기	11.12 ~11.23	12	관측된 기후 특징은 예년보다 이른 첫서리와 첫얼음과, 적은 강수량였으며 상화의 객기와 실제기후는 부합하지 않았다.
5운6기	11.24 ~1.20	58	관측된 기후 특징은 예년보다 기온이 낮았으며, 겨울가뭄이 심하였다. 가뭄은 객기의 기후특징과 부합하나 객운은 소치로 화기가 성한 따듯한 겨울 날씨를 예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대단히 추운 겨울이었다.

관측된 실제 기후 도표인 【도표 14】를 비교하여 정리하면 【도표 15】과 같다.

【도표 15】甲子年(1984년)의 경우에 있어 관측된 실제 기후와 예상 기후의 비교 분석 도표 【도표 16】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해의 각 기간별 예상 기후와 실제 기후 사이에는 부합하지 않는 면도 있었지만 대체로 그 기간의 예상 기후와 실제 기후가 일치하는 점이 많았다.

3. 氣候 特徵에 관한 分析.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운기학에 있어 기후를 예측하는 요소는 대단히 많고 또 그 요소들끼리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기가 매우 힘들다.

기후 예측의 요소를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하였다.

첫째, 主運과 客運 그리고 主氣와 客氣와의 관계에 의한 기후 변화이다. 주운과 주기는 한해 기후의 정상적 진행 과정의 기준이 되고 여기에 해마다 바뀌는 客運·司天之氣가 主運·主氣와 상합하여 다양한 기후의 형태들을 파생시킨다.

둘째, 運氣相合에 의한 기후 변화이다. 運氣盛衰의 경우는 해당 년의 客운과 사천의 관계에 의해 太過·不及한 氣運이 中和가 되어 20개의 平氣年되며, 이 해는 급박한 이상 기후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 온화한 해들이다.

運氣順逆의 경우는 運과 氣의 오행 생극에 의하여 '順化'·'天刑'·'小逆'·'不和'의 네 가지 관계가 형성되며 이에 따라 기후의 강약이 결정된다. 順化에 해당하는 해의 기후 변화는 평화롭고, 天刑에 해당하는 해의 기후 변화는 격렬하며, 小逆과 不和에 해당하는 해의 기후는 변화가 비교적 심한 편이다.

運氣同化的 경우는 天符·世會·同天符·同世會·太乙天符와 같은 경우가 있으니, 해당 년의 기후 특징과 기운의 강약을 「육미지대론」에 “天符爲執法. 歲位爲行令. 太一天符爲貴人, 中執法

者, 其病速而危, 中行令者 其病徐而持. 中貴人者 其病暴而死”라 하여 구분하였다.

셋째, 이상 기후에 의한 기후 변화이다. 주운과 客운, 주기와 客기의 기후 관계 그리고 운기 상합에 의한 기후 변화는 비교적 예측 가능 하지만 이상 기후의 현상은 돌발적으로 일어난다. 「六微旨大論」에 나타난 ‘亢即害, 承乃制’의 이론에 의하여 살펴보면 過亢하여 勝한 그 해의 기운은 被克을 당하는 運의 子에 의하여 報復을 당하게 되며, 이런 勝·復作用에 의하여 기후는 대단히 돌발적이고 극렬하게 나타난다. 이는 潛鬱된 기운이 갑자기 폭발하므로 「氣交變大論」에 “帝曰; 歲候不及, 氣太過而上應五星, 今夫德化政令災變易非常而有也, 卒然而動, 其亦爲之變乎? 岐伯曰; 承天而行之, 故無妄動, 無不應也. 卒然而動者, 氣之交變也, 氣不應焉, 故曰應常不應卒, 此之謂也.”라 하여 해당 년의 갑작스런 기후 이변은 하늘의 오성과도 상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으로 미루어 천체의 운동과는 별개로 어떤 법칙성을 가지지 않고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시기와 기상 이변의 강도를 예측하기는 대단히 힘들 것으로 이해된다.

본론에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60甲子の 분석을 통한 기후의 특징과 실제 기후와는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60갑자에 대한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 단순히 60진법으로 순환하며 그 해를 나타내는 ‘甲子紀年法’으로 해당 년의 여러 가지 특징을 한꺼번에 표현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논자는 해당 년의 중운과 사천·재천으로 한해 기후의 특징적인 부분만을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主氣와 客氣 六步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鬱發·勝復關係와 기후 변화는 밝히지 못하였다.

둘째, 60갑자는 동의학에 있어 고유한 의미를 무한히 내포하고 있다. 수천 년에 걸쳐 조금씩 누적되어 온 세차 운동과 산업혁명 이후의 지구 대기의 온실효과로 60갑자의 근본이 되는 北極星과 二十八宿 그리고 十二辰의 위치 이동으로 결국 60갑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의문점을 갖게 되었다.

요약하면 운기학설은 의학이 천문, 역법, 기상 등 여러 학문과 결합된 산물로 실제적인 관측에 있어 유의성이 드러나지 않았기에, 많은 의가들이 접근 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때문에 일부 의가들이 운기학의 기계론적인 사고나 미신이나 占卜의 방향으로 끌려들어 이를 왜곡 시키려 한 점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고, 이러한 부정은 사람들의 사고를 깊게 하였고 의학의 이론 발전을 촉진시켜 운기학의 발전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을 주어 결코 부정적인 측면만은 아니었다.

Ⅲ. 結 論

『黃帝內經』에 기재된 氣象에 관한 연구에 있어, 운기의 기후 특징을 기상관측 자료와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1954년에서 1983년까지 서울의 평균 풍속·평균 기온·강수량·평균 습도를 大運과 비교한 결과 火氣와 濕氣는 대운의 속성과 일치하였고, 寒氣는 유의성이 있었으며 燥氣와 風氣는 일치하지 않았다. 그리고 司天之氣와 기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濕土가 가임한 경우만 일치하였고, 君火가 가임한 경우는 어느 정도 유의성이 있었고, 風木과 燥金, 相火와 寒水가 가임한 경우는 일치하지 않았다.
2. 과거 180년간 관측된 서울의 강수량은 大運에 있어 水運이 太過한 경우와 火運이 不及한 경우와 司天에 있어 厥陰이 가임한 경우가 높았다. 따라서 土運이 太過한 경우와 司天에 濕土가 가임한 경우와 강수량은 일치하지 않았다.
3. 과거 1564년에서 1863년까지 한반도의 이상 기후 발생 빈도와 運氣盛衰와 運氣同化와 運氣順逆의 관계를 비교하였을 때, 運氣盛衰와 運氣順逆과 이상 기후 발생 빈도와와의 관계는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運氣同化의 경우는 이상 기후 발생 빈도와

일치하였다.

4. 1984년인 甲子年의 기후특징을 한해의 각 기간별 예상기후와 실제 기후사이에는 부합하지 않는 면도 있었지만, 대체로 운기상합의 해석을 통한 예상기후와 실제 관측된 기상청의 자료를 비교하면 일치하는 점이 많았다.
5. 실제 관측된 기상 현상과 운기 이론에 따른 분석은 현실에 있어 유의성이 드러나지 않았기에, 일부 의가들이 운기학의 기계론적인 방향으로 현실과 대응시켜 운기를 부정한 점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기계론적인 운기론을 부정한 의가들로 인하여 운기론의 해석을 더욱 심화시켜 의학 이론의 발전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6. 본 논문에 언급한 기상학적인 분석 자료는 한국의 서울을 중심한 분석이었기에, 지리적인 환경 즉 운기론이 발생한 중국과의 지역적인 특성을 배제한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어느 정도 오차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본 논문을 바탕으로 한국형의 운기론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Ⅳ. 參 考 文 獻

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傳統文化研究院, 1994
2. 洪元植, 『中國醫學史』, 東洋醫學研究院, 1984
3. 尹吉榮, 『東醫學의 方法論 研究』, 成輔社, 1983
4. 張景岳, 『類經』, 成輔社, 1978
5. 揚力, 『中醫運氣學』,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5
6. 王琦 외3인, 『運氣學說의 研究와 考察』, 知識出版社, 1989
7. 任應秋, 『運氣學說』,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2
8. 王玉川, 『運氣探秘』, 華夏出版社, 1993
9. 鄭鎮濤, 『內經要覽』 廣東科技出版社, 1987

10. 張廷樞, 『中國氣象學』, 四川科學技術出版社, 1991

參考論文

1. 朴炫局 외1人, 「內經의 氣象에 關한 研究」, 東西醫學, 1984(9)
2. 朴炫局 외1人, 「運氣學說의 理論 및 運用에 關한 研究」, 博士學位論文, 東國大學校 大學院, 1996
3. 金重漢 외1人, 「王冰에 關한 研究」, 慶熙韓醫大論文集, 1981
4. 尹暢烈 외1人, 「干支와 運氣에 關한 研究」, 慶熙大學校論文集, 1987
5. 李炯周 외3人, 「運氣論의 本質的 理解와 그 實用化에 關한 研究」, 慶熙大論文集
6. 鄭相信 외1人, 「素問玄機原病式中 五運主病에 關한 文獻的 研究」, 碩士學位論文, 東國大學校 大學院, 1990
7. 金準泰 외1人, 「尹草窓의 生涯와 草窓訣의 書誌學的 意義에 關한 小考」, 大田大學校 論文集, 1993
8. 申興默 외1人, 「三陰三陽의 五行六氣 氣化生理에 關한 研究(1)」, 東國大學校 大學院
9. 金性銓, 「黃帝內經의 運氣二十五人 體質論에 關한 研究」, 大韓韓醫學會誌 第10卷 第2號
10. 李民聽, 「從蘭州氣象談運氣學說」, 『陝西中醫』 1985년 5기
11. 劉玉芝, 「鄭州地區30年氣象學要素對運氣學說의 驗證」, 『河南中醫』, 1985년 2기
12. 閻樂知, 「用現代氣象學驗證五運六氣學說의 價值」, 『北京漢醫學院學報』, 1984년 5기
13. 趙嘉俊, 「運氣太過不及與天津氣象의 印證」, 『浙江省中醫雜誌』, 1981년 3기
14. 封菊秋, 「怎樣認識五運六氣」, 『遼寧中醫』, 1979년 3기
15. 郝少杰, 「五運六氣學說與氣候關係의 探討」 — 附:西安30年氣象資料分析, 『陝西中醫』 4(5). 1. 1983
16. 鄭友芝, 「運氣學說與杭州氣候」, 『浙江中醫雜誌』, 1980. 5

=Abstract=

A Study on Yunqi Climate (運氣氣候) through analysis of Meteorological research data in Korea

Chan-Young Park · Ki-Wook Kim · Hyun-Kook Park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and Medical History

The comparison of climate's character of Yunqi(運氣) with the data of meteorological observation were made in the research of climate.

1. The comparison of the average velocity of wind, temperature, rainfall, humidity of Seoul, by late 1954 to 1983, with Yunqi(運氣) was made. Fire-Chi(火氣) and moisture-qi(濕氣) were matched with the attribute of Taiyun(大運). Cold-qi(寒氣) was had some relationship. Dry-qi(燥氣) and Wind-qi(風氣) were not matched. About the relationship of Spirit-of-official-sky(司天之氣) with climate, when the Moisture-soil(濕土) was added, they were matched and when the King-fire(君火) was added, they have some relationship. But Wind-tree(風木), Dry-metal(燥金), Buble-fire(相火), Cold-water(寒水) was added they were not matched.
2. According to the observation data of rainfall by late 180 years of Seoul; about Taiyun(大運), when the Water-Yun(水運) was greatly exceeded and Fire-Yun(火運) was shorted, in the case of Official-sky(司天), when Wind-Tree(風木) was added, the frequency was highly. So when the Soil-Yun(土運) was greatly exceeded and when Official-sky(司天) was added to the Moisture-soil(濕土), the rainfall was not matched.
3. The relationship of the frequency of the abnormal climate occurrences between Yunqi-promotion-weak(運氣盛衰) and Yunqi-Harmony(運氣同化) and Yunqi-soft-attacking(運氣順逆) in the weather of Korean Peninsula was compared by 1564 to 1863. They were not matched except the case of Yunqi-Harmony(運氣同化).
4. There were some cases which were not matched exactly between the climate predicted by the theory and real climate in 1984, the year of Kap-ga(甲子年). But many correspondence between the observation by the office of meteorology and the prediction by the analysis from Yun-qi-sang-hab(運氣相合) theory.

5. Because meteorological phenomena of real world and analysis from the hypothesis of Yunqi(運氣) have no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some of Doctor denied Yunqi(運氣) in the way of matching mechanically. But the thought of Doctor who denied Fortune-spirit(運氣) made promotion for the theory of divination by bringing deeper insight. And it was not only the negative side.
6. In the point of geographical difference, the climate of China, the origination Yunqi theory, is different from the Korea's. Thus some observation errors should be considered. From the basis of this thesis, I hope that the deeper advance would be made into the Korean Yunqi theory.

Key word : 'Five-Yun and Six-Qi(五運六氣)', 'Huang Ti Nei Ching(『黃帝內經』)', 'Ten Celestial branches(十干)', 'Twelve earth branches(十二地支)', 'Sixty JiaZi(六十甲子)', atmosphere(氣象), climate(氣候), 'Dea Yun(大運)', 'Qi of Sa-Cheon(司天之氣)', 'Ju Qi(主氣)', 'Gaek Qi(客氣)', 'Gaek-Ju-Ga-Im(客主加臨)', 'Yun Qi-promtion-weak(運氣盛衰)', 'Yun Qi-Harmony(運氣同化)', 'extraordinary-climate(異常氣候)', 'win-revenge(勝復)', 'pressspasm(鬱發)', 'meteorological state(氣象聽)', 'seoul(서울)', 'korea peninsula(韓半島)'.